



KIA, 부활한 체력 테스트 우승 이전으로 '정신무장'

내달 1일 日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전 실시

단순히 기록의 문제가 아니다. 선수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지에 따라 테스트가 숨어있다.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은 지난해 통합 우승의 달콤한 꿈을 뒤로 하고 2018시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첫 번째 관문은 부활한 체력 테스트다. KIA는 내달 1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른다. 캠프로 떠나기 전 첫 공식 일정인 바로 체력 테스트다.

체력 테스트는 LG 트윈스 감독 시절부터 김기태 감독의 신년식이다. LG 사령탑을 맡았을 때도 종종 김 감독은 "이제야 체력 테스트를 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KIA 지휘봉을 잡은 후에도 지난 2016년까지 통과하려던 체력 테스트를 지켰다.

지난해에는 여러 사정과 상황상 하지 않았지만, 올해 다시 부활했

다. 1군 주전, 백업, 2군 유망주 구분 없이 선수들은 테스트를 앞두고 개인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뜨거운 훈련 열의를 보이고 있고, 1월 1일부터 올해 신인 선수들까지 합류하면서 캠프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부활한 체력 테스트에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우승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 선수들에게도 정신무장을 당부하는 셈이다.

체력 테스트는 인바디 측정 등 기본 검사를 시작으로 기초 체력 점검이 추가 된다. 메인 코스는 단원 장거리 러닝이다. 지난 2016년에도 광주 구장 인근에 위치한 야외 경기장에서 400m 트랙을 10바퀴 도는 4km 러닝을 테스트 참가 선수 전원 실시했다.

1년 내내 훈련을 하는 운동 선수

들이지만 장거리 러닝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다. 빠른 속도로 가쁜히 뛰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 녹초가 되어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들도 속출한다.

하지만 김기태 감독표 체력 테스트는 단순히 선수들이 적어낼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수들이 비시즌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왔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비록 기록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태도와 준비성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코치스태프가 칼 같이 커트 라인을 정해놓고 자비 없이 테스트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수의 몸 상태에 따라 최대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편이다.

KIA가 지난해 많은 이들의 시즌 전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팀 케미스트리였다. 체력 테스트는 새 시즌을 앞둔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손흥민, 영국도 미국도 베스트 11... "EPL 톱5 실력"

英 BBC · 美 ESPN 선정 "안정적 실력 뽐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26)이 영국 BBC와 미국 ESPN 등 유력 미디어 선정 2017~2018 EPL 23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15일(한국시간) 영국 공영 BBC와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선정한 EPL 23라운드 베스트11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했다.

BBC는 "토트넘이 에버튼을 4-0으로 꺾으며 4위권을 추격하는 가운데 손흥민이 1골 1도움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며 "기록보다 훨씬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시즌 일관 남치는 플레이로 그라운드를 누볐다"고 칭찬했다.

손흥민은 14일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튼과의 리그 23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올렸다.

BBC가 선정한 베스트11 가운데 토트넘 선수로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손흥민을 팀 동료 해리 케인과 함께 공격적 베스트11에 선정한 ESPN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리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안정적인 실력을 뽐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마지막 올스타전 마친 김주성 "가슴의 울림 있어"

2002~2003시즌 데뷔 후 16시즌 연속 올스타 선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 경기. 은퇴를 앞둔 김주성(DB)이 올스타전 출전 선수와 코치진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농구 원주 DB의 베테랑 센터 김주성(39)이 선수로서 마지막 올스타전을 치렀다.

김주성은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히정현 드림' 소속으로 '오세근 매직'을 상대했다.

앞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결정한 김주성에게 이번 올스타전은 자신의 16번째이자 마지막 축재였다. 올스타 16회는 최다 기록이다.

김주성은 "이번 올스타전에 뽑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코트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했다.

BBL은 1쿼터 5분여를 남기고 김주성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과거 활약했던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주성은 은퇴 기념 액자를 김영기 KBL 총재에게 전달하고 양 팀 선수들과 단체사진을 찍었다. 한술밥을 먹고 있는 두경민, 디온테 버튼(이상 DB)은 이날 여러 후배들이 김주성의 마지막을 축하했다.

김주성은 "가슴이 좀 울리더라"며 "마지막 경기에서 웃으면서 은퇴하고 싶은데 눈물이 날 것 같다. KBL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나이가 많아져 정성기차별 팀워크를 지양하게 되기 어려워졌지만 이날 김태환(삼성)의 패스를 옆리움 팀으로 연결했다.

그는 "다리가 부러져도 하겠다는 마음은 먹었지만 팀워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못 했다"며 "(김)태환이 패스를 너무 잘 줬다. 고맙다고 했다. 둘은 부산동이고 선 후배"다.

김주성은 2002~2003시즌 데뷔 이래 이번 시즌까지 한 차례도 빠진 없이 16시즌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발됐다.

김주성은 가장 기억에 남는 올스타전으로 "MVP를 받았을 때"라며 "이후에 (정규리그 MVP와 챔피언결정전 MVP를 석권하며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더 큰 의미가 됐다.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2007~2008시즌 올스타전,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 MVP를 휩쓸며 역대 최초 MVP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지만 일단 구단과 공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리커튼에서 있었던 최연소 올스타 송교창(KCC)과의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김주성은 "(송)교창에게 '아니 내가 내 올스타 기록을 쫓는 것 같다'고 했다. 충분히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 계속 자신감 있게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올스타전은 '히정현 드림'이 '오세근 매직'에 117-104로 승리했다.

뉴시스

빅토르 안, 평창 참가한다...올림픽기 단 러시아 대표팀

소치올림픽서 3관왕 차지

빅토르 안(33·안현수)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안드레이 막시모프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은 14일(현지시간) "평창 올림픽 출전선수 명단에는 유럽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18 유럽 쇼트트랙선수권 대회에는 안현수를 비롯한 러시아 남녀 선수 10명이 출전했다.

러시아는 이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안현수는 남자 500m에서 2위를 하며 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다만 러시아가 국가주도의 도핑 스캔들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안현수 등 러시아 대표팀은 오륜기를 달고 참가하게 된다. 안현수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3관왕,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선 러시아 국적으로 3관왕을 차지했다.

뉴시스

전북 현대, 티아고 영입 "이동국·김신욱·로페즈 시너지"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브라질 출신의 검증된 공격수 티아고(25)를 영입했다.

전북은 15일 "사우디에티오피아 알힐랄 소속이었던 티아고와 3년 계약에 성공했다. K리그 최고의 공격진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브라질 선수 특유의 유연함을 이용한 측면 돌파와 순간 스피드를 겸한 드리블이 장점이었던 티아고는 주무기인 왼발에서 나오는 크로스가 날카로워 다양한 공격 옵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티아고는 브라질의 명문 산토스 FC의 유스 출신으로 일찍부터 잡재

력을 인정받았다.

2011년 포로에 데뷔해 브라질의 아메리카 미네이루, 파랏냐 등에서 활약했다. 2015년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하며 K리그 무대를 밟았다. 2015시즌 후 성남 FC로 자리를 옮긴 티아고는 2016시즌 전반기 19경기에 출전해 13득점 5도움의 뛰어난 기록으로 능력을 입증했다. 그해 여름 사우디에티오피아 명문 클럽 알힐랄의 러브콜을 받고 이적했다.

전북은 "포항과 성남에서 뛰며 K리그 검증받은 마친 티아고는 기존의 이동국, 김신욱, 로페즈로 이어지는 공격라인에 힘과 스피드를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강희 전북 감독은 "티아고의 합류로 팀의 측면 공격력이 더욱 강해졌다"며 "기존 선수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K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분명히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티아고는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 이상을 경기장에서 보여 주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최지만 밀워키行...최대 150만 달러

KBO리그 출신 팀즈 등과 1루 포지션 경쟁

자유계약선수(FA) 최지만(27)이 최대 150만 달러(약 15억9000만원)에 밀워키 브루어스와 스포츠 계약을 맺었다.

최지만의 에이전트 GSM은 15일 "최지만이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고 밀워키와 계약 절차가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뉴욕 양키스에서 뛴 최지만은 FA로 풀린 뒤 새로운 팀을 모색했다. 많은 구단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착지는 밀워키로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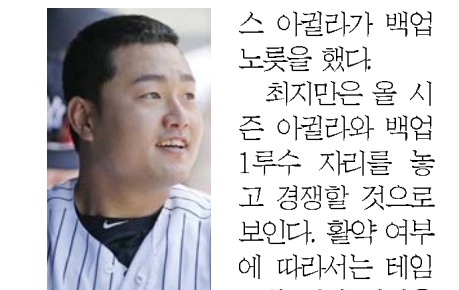
최지만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진입할 경우 연봉 88만 달러(약 9억 5000만원)를 보장 받는다. 200타석

을 채우면 20만 달러(약 2억1000만원)를 받고 이후 100타석이 추가될 때마다 10만 달러(약 1억8000만)씩 더 지급된다.

올시즌을 모두 채울 경우 연봉 포함 최대 15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여기에 옵션 아웃 조항도 포함되어 성적에 비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스프링캠프 후반기 시즌 중인 6월 15일 두 차례 옵션 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밀워키는 KBO리그에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에릭 테임즈(32)가 뛰고 있다. 지난해 테임즈는 밀워키의 주전 1루수를 맡았다. 해수



스 이퀄리타 백업 노릇을 했다. 최지만은 올 시즌 아킬라와 백업 1루수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활약 여부에 따라서는 팀인즈와 주전 경쟁을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최지만은 지난 시즌 양키스에서 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7(15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에 그쳤다.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뛴 첫 경기에서 홈런을 때리는 등 주목 받기도 했지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양키스 산하 트리플 A에서는 87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8(288타수 83안타) 15홈런 60타점 OPS 0.911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60경기에 출전해 타율 0.181(127타수 23안타) 7홈런 17타점의 성적을 거뒀다.

뉴시스